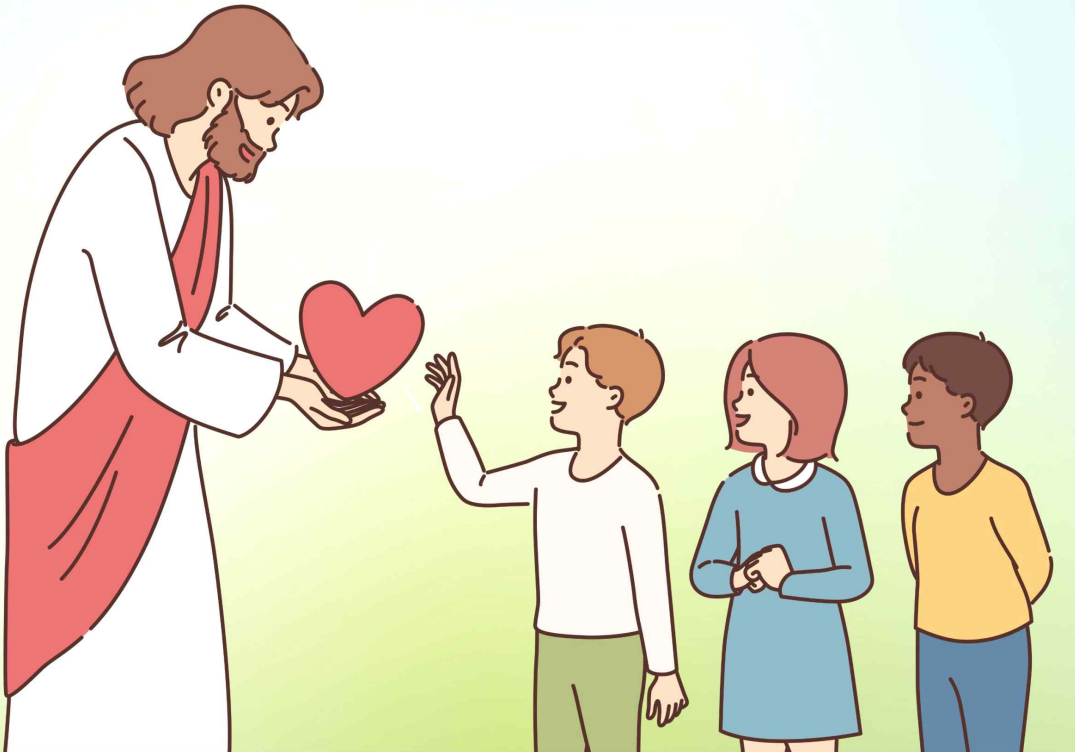


가정

하나님께
 예배 드립니다.



성경이야기

여러분, 친구들과 게임을 할 때 내 마음대로만 하다가 지는 경험이 있나요? “이건 이렇게 해야 이길 수 있어!” 하고 혼자 결정했다가 오히려 실패한 적이 있을 거예요. 사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할 때 누구에게 물어보느냐가 아주 중요해요.

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베냐민 지파가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. 이스라엘은 큰 군대를 모았고, 하나님께 “우리가 먼저 올라갈까요?”라고 물었어요. 하나님께서는 “올라가라”고 말씀하셨어요. 그런데 이상하게도 첫 번째 싸움에서는 이스라엘이 지고 말았어요.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.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?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물어보긴 했지만,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“우리가 많으니까 이길 수 있어!”라는 마음이 있었어요.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깨닫게 하셨어요. 세 번째에는 이스라엘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.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순종했어요. 그 때 하나님은 마침내 승리를 주셨어요. 이 싸움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, “누구를 의지하느냐”를 배우는 시간이었어요.

우리도 똑같아요. 시험을 볼 때, 친구와 다툰 때,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요.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물어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,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.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,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.

여러분, 우리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,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. 함께 외쳐볼까요?

“내 마음대로 말고,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요!”

